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rak
dongrak.kong@daishin.com

잭슨홀 “더 강화된 인상 기대, 그러나 당장은 아니다”

- 잭슨홀에서 인플레이션 강조한 워시 의장. FOMC에 이어 다시금 ‘물가 안정’
- 매파적 해석이 불가피한 美 통화정책 기조. 시장은 빠르게 인상 반영 중
- 그러나 인상 확률이 높아진 것과 당장 인상은 ‘별개’. 기존 연내 동결 뷰 유지

“물가 여건이 우려되고, 필요 시 대응”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이 미국의 물가 여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필요시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를 9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로 보기에 는 미흡한 대목들도 많았다.

이에 당사는 종전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은 분명하나 9월 인상에 대한 명확한 신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올해 중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란 기존 뷰에도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

잭슨홀: 2% 웃도는 물가에 대해 연준은 강력하게 초점

28일(현지시각)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워시 의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올 여름 PCE 물가지수와 CPI가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근본적인 추세가 의미 있게 개선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워시 의장은 연설문에서 “(연준의) 의무인 물가 안정성 면에서 관련된 여러 수치들이 (다른 지표들에 비해) 보다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를 상회하고 있으며 연준은 물가에 강력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들은 대체로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스왑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보상 지표 역시 강력하고 유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7월 FOMC 직후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던 금융 여건에 대해서는 “제약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높아진 시장 금리로 인해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전환됐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거듭되는 물가 강조와 빠르게 인상을 프라이싱하는 시장

잭슨홀 연설에서 워시 의장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자신들의 물가 안정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현재 연준의 핵심적인 관심은 물가 안정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즉 7월 FOMC에서 보여준 ‘물가 목표 2% 달성’과 같은 헤드라인의 연장선인 동시에 연준의 매파적인 시각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낸 이벤트의 성격이 컸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7월 FOMC 회의와 잭슨홀 심포지엄을 차례로 거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CME FedWatcher에 따르면 오는 9월을 포함해 향후 FOMC 일정들마다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비율도 워시 의장의 연설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기도 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그러나 인상 확률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당장 인상은 아닐 것

그러나 당사는 이번 잭슨홀 연설에도 불구하고 다음 9월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당사의 시각은 워시 의장이 직접 물가를 강조했지만 해당 연설의 시계(視界)가 팬데믹 이후 달라진 경제 여건을 점검하는데 맞춰졌고, 물가가 고용이나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려된다는 취지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특히나 워시 의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에 이어 연설문 말미에 “오늘 하나의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니라 원칙에 대한 약속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문구를 감안하면 이번 연설을 다음 회의 결정에 대한 예상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사는 미국 기준금리 동향에 대한 기존 전망인 연내 동결, 2027년 인상 개시 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